

# 선진의료 한국을 위한 아픈 처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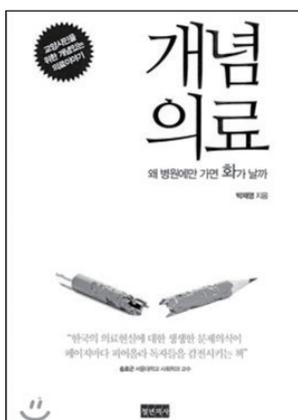
송호근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 Painful but Inevitable Prescription for the Korean Healthcare Reform

Ho Geun Song

Professor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저서: 개념의료: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편저자: 박재영

출판사: 청년의사

출판년도: 2013년

쪽수: 415쪽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한국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나고 사회학자인 나에게 물어본다면 노동, 교육, 의료라고 서슴없이 답하겠다. 그런데 노동과 교육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쏟아왔고 제법 그럴듯한 개혁방안들도 자주 제안되어 왔음에 비해, 의료문제는 공론장을 달구는 전국적 쟁점으로 잘 부상하지 않고 개혁의 우선순위에서도 흔히 밀려났던 것이 한국사회의 일반적 풍경이었다. 의료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의료문제에는 전문가 집단, 관련 산업, 환자, 정부 간 좀처럼 합의되지 않는 이해갈등이 실태처럼 얽혀 있고, 의과학과 약학이라는 첨단과학과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첨단기술, 지식의 시장화를 심사하고 통제하는 정부권력 간의 미묘한 경쟁이 항시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볼거린 쟁점은 외견상 단순해 보이지만 그 배경과 원인을 파고들어 갈수록 수렁에 빠지는 것이 의료분쟁이다.

1999년 발생했던 의약분업 관련 분쟁이 전형적 사례다. ‘진료는 의사가, 약은 약사가’라는 원칙은 얼마나 정의롭고 타당한가. 그러기에 의약분업에 저항하는 의사집단을 이기주의로 내몰 수 있었다. 당시 신문들도 일반 여론의 극단적 비난 기류에 편승해서 ‘의사는 환자를 볼모로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단정했지만, 파업이 오

래 지속되면서 논조가 슬그머니 바뀌었다.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았던 것이다. 의사파업이 진정된 이후 13년이 지났다. 당시 의사파업을 계기로 한국의 의료체계에 관한 연구서를 냈던 필자로서는 궁금하기 짝이 없었다. 13년 동안 한국의 의료체제는 발전했는가, 아니면 그 상태로 성장이 멈췄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연구서는 거의 없었기에 말이다. 의료전문 인력 10만 명을 보유한 한국에서 왜 이런 연구서가 출간되지 않았는지도 의아하지만, 미래의 삶에서 차지하는 의료의 중요성에 비춰 의료사회학적 관심이 이렇게 확대받고 있는 현실도 서글프다.

이러던 차에, <청년의사> 편집장을 지낸 의학저널리스트 박재영 씨가 의욕적인 저서를 냈다.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저자의 문제의식도 바로 그것이었다. 의료대란 이후 한국의 의료는 진보했는가? 의료 분야 이해당사자들은 이제 ‘같은 언어’를 쓰고 있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책장을 넘기면서 저자의 답을 찾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니요’였다.

13년 동안 한국의 의료는 ‘땀질식 처방’으로 연명해 온 거였다. 저 보험료-저수가-저급여라는 삼박자 원칙으로 건조된 한국의 의료는 어지간한 불화와 분쟁에도 끄떡하지 않은 채 태생적 관성을 유

감없이 발취하고 있는 중이다. 그 관성이 '성공의 신화'를 낳았다는 철 지난 믿음에 의거해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구체제의 위용을 늠름하게 뽐내고 있다. 의료환경은 이미 천지개벽할 정도로 바뀌었음에도 말이다. 그것을 우리는 '성공의 위기'라고 부른다. 한국의 의료는 '성공의 위기'라는 터널로 진입했고, 그 터널의 끝엔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 건강보험체계의 붕괴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면적 대수술이 필요한 응급상태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을 탄생시킨 위기의식이다. 위기의식은 사랑과 애착심에서 비롯된다. 누구보다 의료현장을 잘 알고 있는 의사로서, 500여 편의 의료칼럼을 집필했던 촉망받는 칼럼니스트로서, 저자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한국의 의료현실과 미래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거다. 어쨌든 지혜로운 처방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세 개의 큰 주제를 차분하고 냉정한 필치로 그려 나간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의료의 현실, 과거, 그리고 미래대응적 과제가 그것이다.

의과학자로서 저자는 인류학적, 사회학적 지식과 비교론적 시각을 두루 갖춘 보기 드문 연구자다. 복잡하기 짝이 없고 갈수록 길을 잃기 쉬운 한국의 의료현실을 이렇게 선명하고 친절하게 그려 낸 책이 예전에 있었던가 싶을 정도다. 의료문제를 보는 저자의 시각은 '의료는 문화다'라는 짧지만 강렬한 명제에 집약되어 있다. 의학은 과학이지만, 의료체제는 지식, 기술, 정치, 집단권력, 습속, 경제가 서로 뒤섞여 문화적으로 변용된 제도적 복합체인 것이다. 제도가 일단 탄생하면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으로 불리는 내부 관성에 의해 작동하고 진화한다.

모두 3부로 나뉜 이 책은 한국의료의 전모를 알고 싶었던 독자들, 의료쟁점에 관한 남다른 판단력을 얻고 싶어 했던 독자들에게는 반가운 처방전이 아닐 수 없다. 1부는 우리가 처한 현실 이야기다.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우리는 도대체 어떤 의료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왜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가? 더 나아가 행위별수가제는 포괄수가제에 비해 더 나은 제도인가? 의료민영화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얼마 전 대서특필됐던 진주의료원 폐쇄를 찬성해야 하나, 반대해야 하나? 이런 질문에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1부를 읽으면 판단능력이 무럭무럭 자라난다.

2부는 역사와 기원에 관한 얘기다. 한국 건강보험의 탄생과정을 상세히 묘사하고 분해하는 저자의 의도는 과거사에 대한 재해석보다는 오늘날 끊임없이 발생하는 현재적 의료쟁점의 기원과 주소를 알려주려는 데에 있다. 2부까지 읽으면 한국의 의료체제가 선진국과 같고 다른 모습이 환하게 드러난다. 1부에서 생성한 판단력에 역사적 근거를 부가했다는 뜻이다. 독자들은 물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의 의료가 응급상황으로 치달지 않으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3부는 미래대응적 과제의 모색이다. 의료선진국인 미국은 생의학과 정보기술의 융합에 사활을 걸었고, 공상과학소설에 나올 법한 '헬스 2.0'과 'm-헬스'의 상용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병원에서의 면대면 진료를 기본으로 하는 현재의 진료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임은 이미 예고된 바다. 닥터 알고리즘(doctor algorithm: 의사가 내리는 중요 결정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이 대신하는 것)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인터넷과 정보기술, 의과학이 결합된 미래의 의료체제에서는 의사의 80%는 잉여인력이 될 가능성이 많다. 가까운 미래 어느 시점에서는 내원 환자로 가득 찬 병원 로비, 하루 100여 명을 설 새 없이 진료하는 의사,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간호사,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몰리는 보호자들의 어지러운 모습이 기록영화로 제작될지도 모른다. 인구 고령화와 의료비 급등 문제는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비책은 있는가?

현실에 대한 아픈 처방은 밝은 미래를 위한 약이다. 의료사회학적 관점에서 한국의 의료현실을 이렇게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파헤친 책은 드물다. 무엇보다 생생한 문제의식이 페이지마다 피어올라 독자들을 감전시키는 책을 선물한 저자에게 반가움과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더 건강한 대한민국!'은 저자만의 소망이 아니라 독자와 독자들의 후손을 위해 지금 이 시대에 이뤄야 할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개념의료: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박재영 저, 청년의사, 2013.8.20.)에 수록된 추천사이며, 의학교육논단 편집위원회의 재계제 요청에 따라 수정 없이 전문을 게재합니다.